



**■ 국제배구연맹 “김연경은 10억분의 1” 극찬**  
국제배구연맹(FIVB)이 4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김연경의 독사진과 함께 “우리는 말하고 또 말했다. 한국의 김연경은 10억명 중 1명”이라고 적었다. 국제배구연맹은 앞서 조별 예선 4차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자 김연경을 향해 “올림픽에 한 번 더 나오면 안 되냐?”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 후에는 “김연경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



▲ 사진=국제배구연맹 인스타그램

**■ 쿠바 레슬러, 올림픽 4연패 쾌거**  
미하인 로페스(39·쿠바)가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슈퍼헤비급에서 올림픽 4연패를 달성했다. 로페스는 2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열린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 결승에서 이아코비 카자이아(조지아)를 5-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 베이징 대회부터 4회 연속 금메달을 딴 최초의 레슬링 선수가 됐다.

**■ 매클로플린, 51초46 세계신기록으로 여자 400미터 허들 우승**  
시드니 매클로플린(22·미국)이 400미터 허들 결선에서 51초46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매클로플린은 4일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 400미터 허들 결선에서 유력 우승 후보자인 달릴라 무함마드(31·미국)를 0.12초 차이로 따돌리며 결선순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매클로플린은 2016 리우 대회에서 16위를 해 결선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 美IOC, '시상식 정치적 표현' 손더스 징계 거부**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는 이번 올림픽 첫 '시상식 정치적 표현' 당사자인 미국 여자 포환던지기 은메달리스트 레이븐 손더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 흑인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손더스는 지난 1일 메달 시상대에 올라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X자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에 위반될 수도 있는 행동이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USOC가 손더스에 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USOC는 혐오 표현이 아닌 표현의 자유라며 “(손더스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레이븐 손더스, 사진=usatoday

**■ 상품성 입증한 허들 셋별 매클로플린**  
허들 셋별 시드니 매클로플린(22·미국)이 '역대급 레이스' 끝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매클로플린은 4일 열린 대회 여자 400m 허들 결선에서 51초 46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매클로플린은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와 역대 20세 이하 육상 선수 중 최고 금액에 후원 계약을 체결한 이징 스타다.

**■ 금·은·동메달, 10대가 싹쓸이**  
지난 4일 도쿄 아리아케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스케이트보드 여자 파크 메달리스트들의 나이가 화제다. 이 경기의 금메달은 만19세인 요소즈미 사쿠라(일본)가 목에 걸었다.

은메달은 2008년 8월26일생으로 올해 만12세인 히라키 고코나(일본)가, 동메달은 2008년 7월7일생으로 히라키 고토나보다 생일이 한 달 남짓 빠르지만 생일이 지나 13세인 브라운(영국)이 차지했다.

올림픽 스케이트보드는 출전 연령에 제한이 없다. 종목을 불문하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최연소 선수는 시리아 여자 탁구 핸드 자자(12)다.

역대 최연소 올림픽 출전 선수는 지난 1992바르셀로나올림픽 당시 조정에 출전한 카를로스 프론트스 페인·당시 11세)다.



▲ 왼쪽부터 은메달리스트 히라키 고코나(12), 금메달리스트 요소즈미 사쿠라(19), 동메달리스트 스카이 브라운(13). 사진=로이터

**■ 올림픽 메달 깨문 무개념 시장**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시 시장이 2020도쿄 올림픽 소프트볼 대표 고토 미우가 수상한 금메달을 깨무는 돌발행동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가와무라 시장은 지난 4일 고토를 만난 자리에서 고토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했다. 고토는 화답의 의미로 금메달을 시장의 목에 걸어줬다. 그러자 가와무라 시장은 “무겁다”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금메달을 깨무는 돌발행동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방역) 의식이 낮다”, “금메달을 새것을 바꿔줘라”, “정말 불쾌하다. 다른 사람의 보물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나” 등 가와무라 시장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대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에서 메달을 스스로 목에 걸도록 하고, 메달을 깨무는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

